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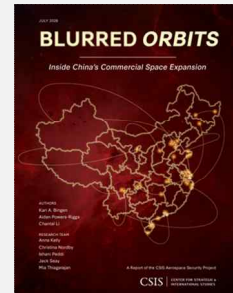
흐려진 궤도-중국 상업우주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 실상

Blurred Orbits: Inside China's Commercial Space Expansion

» **저자** : Kari A. Bingen 외

» **일자** : 2026년 7월 29일

» **출처** :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index%20php/analysis/blurred-orbits-inside-chinas-commercial-space-expansion>



- ❖ 중국의 상업우주산업은 단순한 신산업이 아니라 국가전략의 핵심 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우주를 경제성장과 기술자립, 군 현대화, 국제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간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하고 있다. 상업우주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민간기업이면서도 국가전략과 군민융합을 수행하는 국가역량의 일부로 기능하며, 미국과의 우주패권 경쟁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 2014년 민간투자 허용 이후 중국의 상업우주기업은 10여 개에서 600여 개로 증가했다. 발사체, 위성통신, 원격탐사, 위성항법, 기상, 우주서비스, 우주관광 등 전 분야에서 기업이 등장했으며, 베이징·상하이·광둥·후베이·하이난 등 지방정부는 항공우주도시와 산업단지, 발사장, 연구시설을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방정부 간 경쟁과 대규모 정책자금은 중복투자와 과잉설비를 낳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 특히 저궤도(LEO) 위성통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귀왕(Guowang)과 상하이의 천범(Thousand Sails) 프로젝트는 각각 1만 기 이상의 위성 배치를 추진하며 스타링크에 대응하고 있다. 지리자동차의 위성사업인 Geespace도 자동차와 위성통신을 결합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위성통신뿐 아니라 원격탐사, 기상, 항법 서비스를 일체화해 일대일로 국가를 대상으로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 ❖ 발사체 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랜드스페이스(LandSpace), 갤럭시에너지(Galactic Energy), CAS Space, 스페이스파이오니어 등 10여 개 기업이 등장해 재사용 로켓과 메탄

추진엔진, 해상발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직 스페이스X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비용 절감과 대량 발사를 목표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들은 하이난, 산둥, 광둥 등지에 새로운 상업우주 발사장을 구축하고 있다.

- ❖ 위성 제조능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연간 약 4,100~5,000기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건설 중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연간 7,000기 이상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공장과 디지털트윈, 로봇 조립, 자동차식 생산라인 등을 도입해 생산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일부 공장은 연간 1,000기의 위성을 생산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 ❖ 이러한 산업기반은 군민융합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상업우주기업들은 국방산업 출신 인력과 국유기업, 군 관련 투자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발사체와 위성통신, 원격탐사 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전제로 발전하고 있다. 스타링크가 미국 군사작전에 제공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중국 역시 민간과 군을 결합한 저궤도 위성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 국제적으로는 일대일로와 우주실크로드를 통해 위성통신과 원격탐사, 베이더우 위성항법, 기상서비스를 묶은 통합 패키지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금융지원, 기술이전을 결합해 중국 중심의 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과 디지털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재사용 로켓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일부 위성은 품질 문제와 발사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과잉투자와 수익성 부족, 지방정부 간 중복투자도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단기적인 효율성보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산업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생산능력과 기술축적을 통해 세계 우주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 결국 중국의 상업우주산업은 단순한 민간시장 확대가 아니라 산업정책과 군민융합, 지방정부 경쟁, 국제전략이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이다. 미국이 여전히 기술혁신에서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생산규모와 제조역량, 정책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향후 세계 우주경쟁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대량생산과 공급망, 국제표준, 정보인프라 구축 능력이 핵심 경쟁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